

《방위백서》인가, 재침백서인가

남을 결코 제 리수를 채우는데서 일본을 따를 나라가 없다. 얼마전 일본이 발간한 《2022년 방위백서》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십나라속속들은 백서에 공화국의 《핵 및 미사일활동》이 일본의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친다》고 쏘아박고 방위력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력설하였다. 특히 이른바 《반격능력》을 포함하여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수상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반격능력》보유를 합리화해 나갔다. 일본이 공화국을 결코 군사력강화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침략적, 범죄적 적당동이다. 공화국의 국방력강화조치들은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수호를 위한 당연한 자주권행사이며 자위

적조치이다. 위협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철두철미 일본에서 오고있다. 패망에 대한 양갈음을 해보려고 재침의 독이발을 부둑부둑 같고있는 일본의 군국주의화책들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심히 위협하고있으며 그로 하여 십나라는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의 경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일본이 소위 《방위백서》에서 운운하는 《반격능력》보유론도 그전부터 떠돌아오던 《적기지공격능력》보유론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선제공격》능력강화론이다. 패망후 지금까지 역대 일본의 집권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의 방패막이로 리용해왔다. 또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로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재침책동에 장애로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거해버리기 위해 모지름을 써왔다. 지난 4월에도 《자민당》은 대내외적으로 《적기지공격능력》이라는 표현이 《선제공격》을 의미한다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자 문구를 《반격능력》으로 슬쩍 바꾸어놓고 정부에 그 보유를 제안해나섰으며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방위비도 국내총생산액의 2%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나섰다. 일본이 《반격능력》을 보유하겠다는 것은 지난 기간 표방해오던 《전수방위》라는 간판을 완전히 쫓아버리고 공격전략, 재침전략으로 방향전환하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다. 이것은 일본이 《제국시대》의 모습을 되찾고 공화국과 아시아나라들을 향해 재침의 화살을 날리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이 이번 《방위백서》에 우리 민

족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또다시 쫓아박은것이다. 령토강탈, 재침에 환장한자들만이 할수 있는짓이다. 일본속담에 거짓말하다가 도적질한다는 말이 있다. 일본이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생억지를 쓰면서 거짓말을 일삼는것은 어찌때든 그것을 강탈하려는 흉심에서이다. 공화국을 결코들며 위험천만한 《선제공격》능력강화를 부르짚고 독도강탈기도를 또다시 드러내보인 일본의 《방위백서》야말로 재침백서, 침략백서이다. 십나라속속들은 오만하고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불행은 제스스로 초래한 불행이라는 말처럼 십나라의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이 가져올것은 중극적과멸뿐이다.

남주현

민족성을 보존하는 민족애국행위

얼마전 남조선의 그 무슨 《한미동맹친선협회》의 인간썩물들이 워싱턴에 찾아가 미국대통령에게 조선이름을 섬겨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성을 빼서놓고 본관은 남조선성립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으로 하였다는데 정말 치맛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 누구의 승인을 받고 감히 우리 배세문중의 성씨를 외세의 우두머리에게 진상하는 망동짓을 하였는가. 조선사람들은 옛적부터 자기의 성과 본을 귀중히 여겨왔으며 가문에서 배출한 이름있는 문인, 무인, 기인들의 이름과 공적을 족보에 기록하고 전하면서 후손들이 자랑하고 본받도록 하였다. 특히 나라와 겨레를 지켜 한복을써서 싸운 애국충신들은 민족뿐 아니라 같은 성씨문중의 영웅으로, 성인으로 떠받들려 왔으며 민족을 받들던 번역자, 배신자, 변절자들은 가문의 치욕으로 락인적이고 족보에서 지워졌다.

이러한 전통과 력사는 나라를 사랑하고 침략자를 증오하며 목숨을 버릴지언정 외세와 끝까지 싸우는 강한 우리 겨레의 민족성의 바탕으로 되어 왔다. 우리 배세문중에도 불의와 침략에 맞서 용감히 싸운 선조들이 많다. 더구나 조선사람들은 자기 성씨를 함부로 도용하거나 제멋대로 타인에게 붙여주지 않았다. 그런데 친미사대에 찌든 인간쓰레기들이 우리 민족에게 분별의 고통과 치욕을 강요하고 전쟁의 재난을 들쭉날쭉 침략국의 피우에게 배세성을 함부로 피우웠으니 우리 배세문중과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이 아닐수 없다. 더구나 이자들은 후세에게까지 이름이 오르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지성》으로 지어 헌상했다는데 정말 윤석열적대담은 역대 친미 독재자들도 혀를 찰수 없을 정도의 저주이다. 지금의 미형정부가 출

범해서 한것이만 대조선제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북침전쟁영성을 재개하였으며 침담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들이밀어 조선반도정세를 무한정 격화시킨 것뿐이다. 그런데 상전의 이러한 범죄적행동을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미화하면서 《지성》이라는 이름을 피우어놓았으니 얼마나 추악한 행태인가. 윤석열적대담은 허피루한 참미너드리와 더불어 행적으로 회세의 종미대국노들임을 민족과 력사 앞에 더욱 날날이 드러내고있다. 이따위 인간오물들이 남조선에서 살판치고있는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수치고 비극이다. 민심을 저버리고 대세에 역행하며 조선사람들의 존엄이 어떤 성과 이름까지 침략자에게 피우어놓는 윤석열적대담에게 차려질것은 민족의 저주이고 비참한 말로뿐이다. 평양시 대성구역 룡흥3동 배정기

《시작하자마자 끝났것같다》

윤석열역도가 집권후 불과 2개월만에 지지율이 통치위기수준인 30%초이까지 떨어져 궁지에 몰리고있는데 대하여 외신들도 널리 보도하고있다. 외신들은 이미 예상하였던 일이 터졌다고 하면서 윤석열역도의 무지와 몽매, 부패에 대해 부각시키고있다. 어느 한 외신은 30%대로 떨어진 윤석열의 지지율은 통치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낮은것이라고 하면서 입가가 시작하자마자 《정치적 밀일》기간이 끝났것같다. 지지율이 30%아래로 하락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은 상태라고 아우하였다. 외신은 윤석열의 경험부족과 태도불손, 실수, 다양한 정치적, 개인적문제때문에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지지기반도 빠르게 약화되었다. 출근길에 탁식기자회견을 벌렸지만 낮은 지지율을 무시하는 등의 통명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검찰총장들을 고위직에 등용하여 《검찰공화국》이라는 내부의 비난과 반발을 불러왔다고 하면서 내전내가 여러 공적행사에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닌것과 《국민의힘》안에서 당대표의 성추문의혹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한것도 역도의 지지율

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작용한 데 대해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남조선전문가들도 윤석열이 절제되지 않은 발언들을 하고 모든 문제를 이전 《정부》탓으로 돌리는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만한것으로 비쳐지고있다는 분석들을 내놓고있는데 대해서도 전하였다. 미국언론들은 윤석열역도의 《대통령》자격을 의문을 표시하였으며 십나라것들은 윤석열역도의 낮은 지지율을 조소하면서 역도가 자기들과의 관계개선을 강력히 희망하고있지만 쉽지 않을것이다. 그의 《한》일관계개선시도가 남조선내부의 반일감정을 자극할수록 더 큰 위기에 직면할것이라고 아우하였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남조선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 서까지 조소와 아우,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는 윤석열역도이다. 외신들도 보도한바와 같이 검찰총장실복들을 위주로 집권총을 꾸린 윤석열역도의 독선적인 인사정책과 각계층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나 역도는 《이전 정부에서 서는 민변들이 아예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자기들 정당화하였고 탁식기자회견이라는 데는 자기의 낮

은 지지율에 대한 질문에 개의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극히 오만한것을 나타냈다. 더우기 자기의 처 김건희가 《대통령실》에 예산용계를 끌고다니며 사진을 찍어 외부에 공개하는 등 온갖 해괴한 짓거리를 해도 옹당한 행동인듯이 비호했다. 지어 김건희의 오만무도하고 상식이하의 행동들이 박근혜 《정권》시기의 최순실 《국정》통당과 다를바없다고 하는 보수내부의 비난에 대해서도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 정체를 살리라고 하니 친재벌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돌보라고 하니 세계적경제위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망발하는 역도이다. 오히려 이전 《정부》때문에 모든 문제가 산생되었다고 떠들며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그러니 해외의 비난과 조소, 아우와 규탄의 대상이 되고있는것이다. 내부에서 저주받고 외부에서 조소받는 신세가 된 윤석열역도, 그야말로 산 정치성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러니 입기를 시작하지 두 달만에 끝났것같다는 소리를 들을수밖에. 장정범

남조선에 《통와대》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통산의 청와대라고 해서 《통와대》라고 했더니요. 예? 인왕산아래에 있던 청와대를 통산으로 옮겼는가요? 아닙니다. 이전 청와대주인이 이사를 가고 윤 뭐라고 하는자가 거기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윤씨는 어떤 미신행인가 청와대는 풍수지리적으로 오래전부터 복악산이 풍기는 안운과 지심에서 추추치는 불길한 기운때문에 이전 주인들의 운명이 기구했다고 한 말을 듣고 아예 들어가지조차 않았 습니다. 그리고는 통산에 있는 어떤 집을 강제로 타고앉아 여기가 통산의 청와대라고 하고 선조하고는 《통와대》라고 했단다.

웃기는것은 이사한지 석달도 못되어 벌써부터 쫓겨나신세가 되었다는것입니다. 왜냐구요? 한번 들여보십시오. 《통와대》에 이사한 윤씨는 새집들이를 한다고 돈도 흥청망청 쓰고 《다른 마을(미국)》에서 《축하》해주려 온 《손님》에게 고맙다고 굴서거리며 그가 좋아하는 시까지 읊었다고도 합니다. 마을사람들과 친숙해지고 문학수준도 펜잡다는것을 보여주자던노릇이 더 붙쳐리로 되었습니.

얼마전 남조선외교부 장관이라는 자가 일본을 행각하였다. 물론 십나라것들과의 관계개선문제때문이었다. 눈 딱 감기는것은 명색이 장관이라는 자가 노복처럼 굽신거리며 남조선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달라고 십나라속속들에게 구걸해나선것이다. 남조선내 일본전범기업자 산원금화를 막기 위해 민간합동협회를 2차례나 벌려 놓았단다. 박근혜집권시기 합의된 《한일위안부합의》도 존중한다니 하는 역스러운 꼴두리를 늘어놓으며... 결과는 십나라것들의 코대만 늘어주었다는데 있다. 일본수상은 상대가 말했으면 하고 말했는데 말라는 식으로 고자세를 취하다가

기절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미신행이 너런데의 말은 제외하고) 우직한다고 품성은 아무때나 다리를 짝 벌리고있어 《쩍벌남》, 《사람들앞에 나서면 머리를 좌우로 왔다갔다하여 《도리도리》, 《외조침대고 구두발을 쭈뼛치고 울러놓아 《쩍벌남》이라고 《통와

대》에 이사하기 전부터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수지타산은 또 얼마나 밝은지 사람들을 더 많이 부러워하기 위해 이미전부터 《주120시간노동》을 고안해냈는 가 하면 그들의 먹는 문제는 《돈이 없으면 불랑식품이라도》, 이렇게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윤씨를 주시해보기 시작했는데 인품이나 인격은 말할것도 없고 취미며 취향이며 하는 말. 노는 행동이 모두 팔팔견이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대로 윤씨는 생김새부터가 《악어상》이어서 딱 미용받기 좋은 상인데다 지적수준은 그의 내전내가 《말을 잘 듣는 바보》 혹은 《멍청이》라고 부르는 것이면 알만할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윤씨는 개를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계들과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참 《껌뽀》버릇을 고치기 위해 개와 훈련도 했다 나 봅니다. 윤씨는 《공정》한것을 좋아하는데 레를 들어 내가 아는 사람이면 자격이 없어도 쓸수 있다. 내전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는것은 응당하다는 식입니다. 《상식》도 많이 알고있는데 마을이 잘살자면 《재벌》이라는 말을 많이 키워야 한다. 《손모듬은 아르키카에서 나 하는것》이기때문에 모자라는 일은 《다른 마을》에서 보충하면 된다. 등등... 불행하게도 윤씨는 피해망상증이라는 불치의 병을 앓고있습니다.

《이웃집》이 황상 우리를 넘겨다보고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웃집》에서 우리에게 웃음을 지어주절대로 믿지 말아야 한다. 《이웃집》이 찰리는것은 우리가 안되는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웃집》을 미워하며 온갖 무뎠것을 하나하나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몰라 항상 근심고인데 싸이었는데 그것이 피해망상증이라는 병으로 화하여 제 그림자 보고도 화들짝 놀라곤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품이나 인격이 우직하고 아둔하고 바보스러 운데다 보느니 눈 딱 감기는 망둥이고 듣느니 등에 달지 않는 소리들이어서 사람들은 윤씨에게 《생동이》, 《꽃내기》, 《무지몽매한》, 《침착 서없는 망나니》같은 별명만 잔뜩 붙여놓았습니다.

그때도 윤씨는 그런데는 개의치 않는다는것입니다. 《윤씨는 물러가라》, 《통와대에서 당장 나가라》. 사람들은 윤씨가 동네망신을 깨게 시킨다며 내쫓자고 욕습합니다. 예로부터 민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밧을 없애도 절로 죽는다고 민심의 비난과 저주를 받았고있는 윤씨의 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

《한일위안부합의》를 리행하라는 사무라이후예들의 독촉과 압박만 받고 들어오지 않으면 안되었으니 동양도 못받고 족박만 깨버린셈이다. 가관은 윤석열적대담이 어떤 일본행각을 놓고 대화가 재개될것자체가 큰 성과라고 자화자찬한것이다. 램배와 밀시, 굴육적인 파업만 받고 오고도 《성과》라고 떠드는 윤석열적대담이야말로 쓸개빠진 인간썩물. 천하에 들도 없는 사대매국노들이 아닐수 없다. 참으로 남조선외교부 장관이라는 자의 어떤 일본행각은 윤석열적대담의 사대매국적정체를 다시한번 여실히 드러낸 또 하나의 계기가 리광철

《국민의 힘》에게 옛 시를 보내며

요즘 남조선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내에서 당대표자리를 노리고 권력야심가들이 개싸움질에 열을 올리고있다. 성상납이라는 부패행의로 당대표가 당원권정지라는 중징계처분을 받은것을 계기로 당권쟁탈전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있는것이다. 윤석열역도의 심복중의 심복으로, 핵심관계자로 통하는 자와 원내대표로 조기전당대회개최문제를 놓고 저들끼리 맞붙었다. 선자는 당사부총장자리름 노리며 당대표와 선을 긋는 대외정책을 주장하고 후자는 당대표직무대행을 맡은 기회에 당권을 장악해보려고 한사코 대외개최를 반대해나선것이다. 당대회개최문제를 둘러싸고 각 계파들간에 그리고 계파내에서 갑론을박의 아귀다툼과 살기등등한 도전이 계속되는 속에 때를 놓칠새라 당대표후보감들이라는 이전 원내대표와 정치철세 안철수까지 싸움판에 뛰어들었다. 가족이나 친애한 당원안투에서 저미감 한류 독특히 보려고 기업을 내뽐는 이들을 하여 세력파시, 세력경쟁의 열기는 한층 거세어간다. 여기에 다음기 당권쟁에서 《핵심적역할을 할 인물》들의 《다양한 조합》을 뜻하는 《안정》이니, 《김정》이니, 《철현》이니 하는 피상망목한 신조어가 새로 등장하여 정치리력관계에 따라 리합집산으로 분주한

《국민의힘》의 현실을 낱알이 보여주고있다. 이런 속에 당원권정지라는 중징계로 당대외정책을 박탈당한 리준호와 그의 지지세력은 중징계처분을 두고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악마구리 톡톡 혼잡을 일으키고있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터지 기적전의 불도가니이다. 그놈이 그놈이라 싸움질의 능수린 윤석열역도를 볼 때 아 《윤핵판(윤석열의 핵심관계자)》이요, 《진윤(진자친윤)》이요 하는 패거리들이 앙장서 판을 치고있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제기비네 집안이 되었다. 최근에는 리준호를 당대표 자리에서 밀어낸것을 깨고스 해하는 윤석열의 손전화통보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보수패당내부의 모순과 갈등은 더욱더 격화되고있다. 《대통령》선거전에는 《대통령》후보자리를 놓고 개싸움을 벌리고 지금은 《혁신》의 미명하에 당권을 놓고 저들끼리 풀받이하는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선거때마다 민생을 위해 《노에처럼 똬똠했다》고 침방울을 뿜기던것들이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민생이 보여어나든말든 권력쟁탈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으니 남조선민심이 《국민의힘》을 이니, 《철현》이니 하는 피상망목한 신조어가 새로 등장하여 정치리력관계에 따라 리합집산으로 분주한

느라니 옛 시의 몇구절이 절로 떠오른다. 개 한마리 푸주간 고기 한칼 도적하여 열로 돌아 날새게 빠져 나오자 으렁으렁소리 어찌렇게 들려오는데 못개들이 어울려 서로 먹었다 다들네 진술랑속에 어울려 싸우거니 잃나니 얻나니 오직 그 한가지뿐 얻는대도 주름을 구원치 못하리니. 본사기자 주광일

있는대서 무엇 그리 슬픈 것이 있이라 ... 분시 빼앗지 않고는 만족치 않는것이 동물의 성품이라 욕심은 다함이 없는 법 어찌하여 그네들 조그만 리육에 눈어뒤워 마른 뺨뎀이로 덕을 잃는고 오래전의 시구절이지만 마치 권력이라는 고기덩이를 놓고 제련거리 으렁대는 보수패당을 위해 쓴것같다는 생각이. 본사기자 주광일

쌍방사이의 왕복외교는 솔직한 대화를 위해 필요하다. 앞으로 대화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눈 딱 감기는것은 명색이 장관이라는 자가 노복처럼 굽신거리며 남조선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달라고 십나라속속들에게 구걸해나선것이다. 남조선내 일본전범기업자 산원금화를 막기 위해 민간합동협회를 2차례나 벌려 놓았단다. 박근혜집권시기 합의된 《한일위안부합의》도 존중한다니 하는 역스러운 꼴두리를 늘어놓으며... 결과는 십나라것들의 코대만 늘어주었다는데 있다. 일본수상은 상대가 말했으면 하고 말했는데 말라는 식으로 고자세를 취하다가

그쯤하면 십나라것들의 뻔뻔스러움과 날강도적본색을 알고도 남겼지만 윤석열역도를 대신하여 려도에 기신신 찾이간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상화를 운운하며 일본이 남조선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해달라고 또 구걸하였고 한다. 이에 대해서도 십나라것들은 들은척도 안하고 무시해 버렸다고 한다. 결국 십나라것들의 밀시와 램배속에 매국적인 《한일협

정》과 《한일위안부합의》를 리행하라는 사무라이후예들의 독촉과 압박만 받고 들어오지 않으면 안되었으니 동양도 못받고 족박만 깨버린셈이다. 가관은 윤석열적대담이 어떤 일본행각을 놓고 대화가 재개될것자체가 큰 성과라고 자화자찬한것이다. 램배와 밀시, 굴육적인 파업만 받고 오고도 《성과》라고 떠드는 윤석열적대담이야말로 쓸개빠진 인간썩물. 천하에 들도 없는 사대매국노들이 아닐수 없다. 참으로 남조선외교부 장관이라는 자의 어떤 일본행각은 윤석열적대담의 사대매국적정체를 다시한번 여실히 드러낸 또 하나의 계기가 리광철

후회속에 자기 손을 보며

손이 노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구래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실감하고 있을것이다. 하다면 그러한 손을 자르 고싶다고 토로하는 인간의 웨침은 참으로 손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게 한다. 《윤석열에게 투표하였던 손가락을 자르고싶다!》 이것은 바로 윤석열적대담의 현란한 《대선》공약에 속하여 투표하였던 남조선 각 계층이 리치는 서러한 목소리이다. 손가락을 자르고싶다고 하는 절규에 역도에 대한 민심의 실망과 분노의 크기가 능히 헤아리려고 안목속에 빠져들어 망연자실한 사람들

의 모습이 보여오는듯하다. 각 분야에서 경륜과 실력을 갖춘 인물들을 등용하였다고 호언장담 광고하던 공약을 현실처럼 집어던지고 손

불망나니에게 지지표를 던진 자기들의 손을 후회속에 마주하게 하고있다. 윤석열역도가 침략적인 외교와 야합하여 긴장격화와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것을 보면서, 천년속적 십나라속속들에게 아무굴종하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서슴없이 팔아먹는것을 보면서 매국의 호전정, 추악한 사대매국노에게 투표한 손을 보며 울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었고 절망은 분노로 떠는 자기들의 손을 다시 보게 하

고있다. 윤석열에게 투표하였던 손가락을 자르고싶다! 이 말은 기만과 위선에 속아 불행과 고통을 스스로 몰아온 자기들의 손, 운명의 선택을 잘못된 이해나 단호히 결별하고 역센 손, 억센 주먹으로 위선자, 배신자들을 징벌하고 참다운 삶의 길을 열어나기려는 오늘의 남조선민심을 담고있다. 력사의 심판대는 바야흐로 망고역적 윤석열을 부르고있다. 민심의 역센 손에 뒤덜미를 잡혀 만신창이 되어 준엄한 심판정에 끌려나올 역적의 가련한 물팔이 똑똑히 보인다.

